

스님들에게 받은 감동 선물로 보답

진도농협·주민, 총무원 예방...세월호 성금 등 500만원 전달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진도 지역 농민들이 정성을 모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 전달은 현장에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뤄져 의미가 남다르다.

진도농협(조합장 김신성)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진도농협이 전달한 기금 가운데 300만원은 세월호 희생자 피해 지원에, 200만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진도농협이 아름다운동행을 찾아 기금을 전달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직후, 현지에서 꾸준하게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농협 직원들도 팽목항과 진도군실내체육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서 항적사 주지 범일스님, 쌍계사 주지 진현스님 등 진도지역 스님들이 앞장서서 기도와 구호활동에 펼치고 있는 모습이 농협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진도지역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조합원들은 작은 정성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도 특산물인 울금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불교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온정복지재단 이사장 혜강스님(대구 능화사 주지)의 권유 때문이다. 진도농협과 인연이 있던 혜강스님은 조합원들에게 세월호 희생자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을 소개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동행이 탄자니아에 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금 가운데 일부는 학교 건립에 보태기로 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먼 길을 올라오셨다”고 총

무원을 찾은 조합원들을 환영하며 “전달해 준 기금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세월호 피해 지원과 탄자니아 학교 건립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진도농협 조합원들은 “어려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총무원장 스님에게 진도 농민들이 재배한 울금으로 만든 진액을 선물했으며,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영주와 옷칠수저 세트 선물로 화답했다.

전달식에 이어 김신성 조합장은 “스님들께서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백악관 셰프 샘 카스(왼쪽)는 지난 2일 진관사를 방문해 주지 계호스님(가운데)과 사찰음식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사찰음식 맛보겠네

백악관 주방장 진관사에서 요리 배워갔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저택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백악관 셰프가 한국의 사찰음식을 배우러 서울 진관사를 찾았다. 지난 2일 진관사를 방문한 샘 카스(34)씨는 주지 계호스님과 함께 여름별식인 콩국수와 오이물김치를 함께 만들고 저녁공양을 했다.

이번 만남은 주한미국대사관 초청으로 미국 음식여행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샘 카스의 각별한 요청에서 비롯됐다. 샘 카스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4명의 셰프 중 한 명으로, 1주일에 5번 오바마 대통령의 저택식사를 담당하는 요리사다. 백악관표 맥주 ‘오바마 비어’를 만든 주인공이다. 백악관 정원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제철 채소를 이용한 건강 식단을 만들고 있다.

또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아메리칸 뒤치 캠페인 ‘레츠 무브(Let's Move)’의 상임이사이기도 하다. 미국의 학교급식이 인스턴트 위주로 어린이들의 비만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채식 위주의 건강식당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사찰을 방문한 것이다.

이날 계호스님은 샘 카스와 오이숙을 파낸 뒤 소금에 절여 채 썰고 미나리와 흥고추, 당근으로 속을 채워 만드는 오이물김치와 콩을 불려 간 콩물에 밀가루 반죽을 직접 밀어 만든 국수를 담은 시원한 서리태콩국수를 만들었다. 난생 처음 콩국수와 오이물김치를 맛 본 샘 카스는 “퍼펙트(Perfect)”를 외치며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했다.

“콩국수와 오이물김치가 한 여름

더위를 식히고 몸에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계호스님의 설명을 들은 샘 카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만든 콩국수와 물김치 외에도 버섯강정, 된장뽕뽕이장, 시래기찌개 등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샘 카스는 한국 사찰음식의 담백함에 감탄하며 백악관에서 조리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욕 사찰음식의 날’

한편 사찰음식을 세계인에게 소개해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6월23일부터 30일까지 ‘제3회 뉴욕 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뉴욕행사는 지난 2010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허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나란다축제 종단사업 승격

포교원·은정재단 공동주최
프로그램 참여폭 대폭 확대

청소년 교리경시대회를 시작돼 6회째를 맞이한 나란다축제가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국대와 전국 군법당 등지에서 불교교회의 향연을 통한 포교축제인 ‘제6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한다”며 발표했다.

연인원 1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나란다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 등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회향한마당’과 ‘나란다 댄스경

연대회’가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경찰대 재학생들도 사관생도(육사, 해사, 공사, 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부문에 첫 출전해 경찰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다. 특히 지난해 부분적으로 동참했던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부터 공동주최단체로 나서 나란다축제가 종단 사업으로 더 높은 위상을 갖추게 됐다.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중·고등부문에 예선과 결선으로 나눠 진행되고, 일반부문에 팀별 참가에서 개인별 참가로 전환되는 등 전형요강이 대폭 개선됐다. 중고등부문은 학교와 사찰 등 각 단체별로 예선을 치른 뒤 오는 9월20일 오후2시 동국대에서 불어 ‘회향한마당’과 ‘나란다 댄스경

단체별 최대 참가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되며 단체참가가 어려운 중고등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로 결선 참가자를 선별한다. 또한 일반부문은 팀별 참가제를 풀고 개인별 참가로 전환했다.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해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인들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 9월20일 오전11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펼쳐지는 외국인부문 퀴즈대회가 원어민교사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대1 결연을 맺어 퀴즈를 푸는 ‘개인지전’과 40명이 팀을 구성해 펼치는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2면에 계속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부처님 학교가 맞지요” 한 노스님 2억원 기부하고 사라져...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무상상보시를 실천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2억원을 후원한 노스님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 6월25일 오전9시30분경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학교를 찾아 후원금을 선포기 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스님은 총장실로 안내하겠다는 학교 측의 요청과 차 한 잔도 거절하고 기금 부서 한쪽 회의 테이블

에 앉자마자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부처님의 학교가 맞지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품에서 1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수표 2장을 꺼내 전달하고는 “얼마 안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절도 없고 범명도 없다며 한사코 본인을 밝히길 꺼린 스님은 “수도권에 캠퍼스를 설립한 여타 대학과

달리 경주에 위치한 동국대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측에서 마련한 기부자에 대한 선물과 기념사진 촬영도 일체 거절한 스님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다”며 “갖고 있는 글씨와 액자를 학교 박물관에 기증하러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이계영 총장은 “스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인성과 실전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시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불교기록유산 ‘웹서비스’

2면

■ “천성산 환경복구 시급”

5면

세계 최초, 3003위 大아라한展

작품 조성 기간 10년

三千三

2014. 7. 16 (수) - 7. 29 (화)

오프닝 7.16(수) 오후 5:00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3, 4, 5F)

수행과 예술 그리고 자신의 길 적산(寂山) 스님



모든 것을 던져 물리쳤던 10년의 고행 끝에 탄생한 나한 연작에는 제가 유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작가로서의 꿈과, 출가 이후의 수행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불교의 세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다양한 나한들은 다원화된 시대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들의 구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전시장 내 특설법당 (1일 3회 기도)
국대민안·남북통일·소원성취

*기도 접수 문의 : 010-6432-0086

후원

美術世界

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사



Gallery MISUL
SEGY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4 Tel. 02-2278-8388